테마칼럼

문학과 사회 | 금융경제 | 예술의 세상 | 과학과 미래

배우 한나 쉬굴라와 나

최영미

> 유럽을 유람하며 많은 궁전과 미술관들을 섭렵했지만 한나의 집처럼 사람을 끄는 곳은 없었다. 베르사이유 궁전처럼 화려하지만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 '죽은' 공간에 나는 오래 머물고 싶지 않다.

올해 서울에서 한나를 볼 수 있을까. 여성영화제와 충무로국제영화제 주최 측에 한나의 연락처를 주었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 2006년 독일 월드컵을 앞둔 어느 봄날, 파리로 가는 국제열차 안에서 나는 그녀를 처음 보았다. 1등석 칸이라 승객이 드물어,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좌석의 중년여인과 나는 자주 눈이 마주쳤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녀는 밝게 웃었다. 파리 시내 지하철지도를 펴들고 내가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다. 리용역으로 가는 교통편을 묻는 내게 그녀는 자신의 집도 같은 방향이라며, 택시를 부를테니 같이 타고 가자고 제안했다. 말문을 튼 뒤에 우리는 서로의 직업을 묻고 대화에 열중했다. 한국영화와 남자가 우리의 주된 화제였다. 택시 안에서 그녀는 내게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주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나 쉬굴라(Hanna Schigulla)였다. 이름을 알고도 나는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다. 텔레비전 주말명화 같은데서 그녀가 출연한 영화를 한 두편 보았는지 모르나, 화면에서 스친 얼굴을 현실에서 알아보기는 힘들다.

'뭐야? 한나 쉬굴라를 만났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영화를 공부했던 내 친구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뉴 저먼시네마의 기수인 파스빈더 감독이 가장 좋아했던 독일 최고의 여배우. 친구의 찬사처럼 한나가 대단한 여배우여서가 아니라, 훌륭한 인간이기에 나는 이 글을 쓴다.

여행 중에 스친 이방인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갈색 머리의 아줌마를 다시 보기 위해 2007년 여름, 나는 장미 꽃다발을 들고 벨을 눌렀다. 한나와 함께 사는 쿠바의 여배우가 문을 열어주었다. 자주빛 원피스와 터번을 두른 한나는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크지 않지만 주인의 우아한 취향과 연륜이 배인 실내. 여배우의 집인데 사진이 눈에 띠지 않았다. 자기를 과시하지 않는 깔끔함이 마음에 들었다. 유럽을 유람하며 많은 궁전과 미술관들을 섭렵했지만 한나의 집처럼 사람을 끄는 곳은 없었다. 베르사이유 궁전처럼 화려하지만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 '죽은' 공간에 나는 오래 머물고 싶지 않다.

그녀의 집에서 가까운 식당에서 점심인지 저녁인지 애매한 식사를 주문했다. 불어로 된 메뉴를 하나씩 짚으며 이건 어떤 야채, 어떤 고기가 들어간 음식이라고 지루할 만큼 상세히 설명하는 한나를 보며 나는 감탄했다. 우리 앞의 접시가 비워질 즈음 한나가 호출한 벨기에 출신의 가수인 젊은 남자가 자전거를 끌고 나타났다. 자리를 옮겨 햇살이 은근한 테이블에서 떠들고 마시며 현재를 즐겼다. 우리 넷은 모국어가 달랐지만, 영어와 불어와 독일어와 스페인어를 넘나드는 한나의 언어능력 덕분에 서로를 이해했다. 음치인 최영미가 파리의 노천까페에서 독어로 노래했다면 믿으실런지. 레몬이 들어간 맥주를 마신 뒤 내 입에서 옛날 고등학교의 교실에서 배운 슈베르트가 흘러나왔다. 암 부르넨 호덴 토레… 내가 선창하자 한나가 신나게 따라불렀다.

긴 인생에서 단지 몇시간을 공유한 그들에게 나는 깊은 속내를 털어놓았다. 나의 과거를 들은 뒤 한나는 내 손에 자신의 손을 얹고 '다 지난 일이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내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던 부드러운 시선이 있어, 나는 다시 따뜻해졌다. 헤어지며 그녀의 어깨를 감싼 핑크빛 천이 멋있다고 칭찬하자 한나는 숄을 벗어 내게 선물했다. 너는 어떡하고? 걱정하는 내게 그녀는 똑같은 물건이 또 있다며 나를 안심시켰다. 아! 여기 나와 비슷한 인간이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었구나. 마흔이 넘도록 닥스 바바리를 3벌인가 샀건만, 남들에게 다 주고 지금 내 옷장에는 정장용 트렌치코트가 한 벌도 없다.

파리에서 돌아와, 노독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내 손과 입은 바삐 움직였다. 아름다운 한나를 한국에 초청하고파, 내가 아는 영화계 인사들의 번호를 누르며 나는 행복했다. "우리는 기차에서 만났어…" 지인들 앞에서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며 내 입가에 웃음이 마르지 않았다. 나의 '릴리 마를렌'을 서울의 관객들에게 소개할 그날이 기다려진다. 〈시인〉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신봉석

봄철 건강한 피부를 위하여

나들이 계절인 봄이다.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기분 좋게 나서는 이 때, 피부를 위한 기초작업도 필요한 시기다. 겨울 동안 피부는 차가운 날씨에 많이 연약해져 있고 약해진 자외선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봄으로 이어지는 계절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봄이 되면 기온은 올라가고 일조량은 많아지면서 일교차는 커지고 여기에다 황사까지 겹치는 날이 많아 자외선에 대한 대비도 어려울 뿐 아니라 각종 피부염과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봄철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 자외선 차단과 청결, 수분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출 후 땀, 먼지, 꽃가루 등으로 더러워진 피부에는 기본적으로 이중세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부타입에 따라 지성 피부는 워터·로션 타입, 건성피부는 크림타입의 클렌징제를 사용해 부드럽게, 미지근한 물로 여러 번 헹구어 모래 먼지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 모발 또한 스타일링 제품의 사용을 피하고 청결하게 관리해 주는 것이 두피건강과 탈모에 효과적이다.

각질 제거를 위해 주 1회 정도 딥클렌징을 하고 보습과 영양을 위해 에센스나 크림은 유분과 수분이 모두 공급되는 제품을 사용하며,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한다. 눈은 얼굴 피부 중 가장 얇고 민감해 건조한 계절에 거칠어지기 쉬운 부분이며,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접촉피부염이 가장 잘 생기는 곳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높은 농도의 에센스를 사용하는 것은 도리어 좋지 않고, 평소 진한 눈화장과 반복되는 클렌징을 줄이고 외부자극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봄철에는 자외선과 다양한 외부자극에 의해 피부에 착색이 일어날 수 있다. 외출시 자외선 차단 크림과 메이크업을 습관화하고 특히, 자외선 차단제는 여름만큼 많은 양을 자주 발라주어야 하고 마스크나 모자, 양산을 이용하여 직접 노출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도 좋다.

잡티, 주근깨, 기미 등은 IPL의 치료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적으면서도 만족스러운 효과를 보이며, 피부에 전체적으로 과도하게 끼어 있는 멜라닌 색소를 제거하므로 전체적으로 피부의 톤이 맑아지는 효과를 나타낸다. 직사광선으로 인해 피지분비가 왕성해지고, 과다하게 생성된 피지가 모공을 통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면 여드름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피지분비를 자극하며, 월경이나 임신 또한 피지분비를 촉진시킨다.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서 모공이 막히면 여드름균이 증식하기 좋은 여건이 되어 이 세균에 의해 염증이 생기며, 여드름이 악화된다.

여드름 치료의 일반적인 원리는 피지선의 활동을 억제하여 피지의 과잉 생산을 막고 과각화된 피부를 회복시킨다. 또 면포 배출을 촉진시키며, 면포내 여드름균의 증식을 막고 염증을 감소시켜야 한다. 약물요법으로는 먹는 전신요법과 피부에 바르는 국소도포법이 있다. 증상에 따라 각각의 제품을 여드름 정도와 피부상태에 따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병용하여 사용된다. 또 얕은 박피에 해당하는 스킨스케일링을 통해 여드름 피부를 개선시킬 수 있다.

〈조선대병원 피부과 교수〉

기고

이부열

투표의 즐거움을 누리자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특히 이번 선거는 정권교체 직후 치러지는 선거이자 향후 정국의 풍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선거인만큼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정당과 후보자들은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에 돌입하면서 지난 대선을 통해 정권창출을 이루고 국정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과반의석을 차지하려는 여당과 이를 막고 개헌저지선을 확보하려는 야당의 견제론이 팽팽히 맞서 선거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을 촉발시킬 수 있는 대형 선거 이슈가 없는 관계로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이 매우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최근 중앙선관위의 유권자의식 조사결과 51.9%만이 적극적 투표의사를 밝혀 제17대 총선 당시 전국 투표율이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적극 의사층 59.9%에 근접한 60.6%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는 역대 국회의원선거 사상 가장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주의는 '참여가 미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민주주의의 꽃은 역시 선거가 아닌가 한다. 국정에 대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집약되어 여론이 되고 그러한 국민여론을 보다 확실히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거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작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재외국민 선거권 문제가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되었을 때 참고인으로 출석한 미주한인회장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조국이 신성한 주권이자 참정권인 '선거권을 조속히 달라'는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보고 재외국민들이 얼마나 선거권을 염원하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한 표 한 표는 결과적으로 나라의 장래를 결정짓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에서 '나 하나쯤 기권해도 괜찮겠지'라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독재를 유발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좀 먹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투표에 참여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신성한 참정권을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

더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일에 투표를 마치고 '투표확인증'을 발급받은 선거인은 전국 어디서나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투표참여 우대제도'를 도입, 이번 선거에서부터 적용키로 했으니 '임'도 보고 '뽕'도 따는 투표의 즐거움을 누려보길 바란다.

끝으로 투표 당일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또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는 기표난에 도장이나 손도장을 찍거나 문자나 기호 등으로 낙서하게 되면 무효가 된다. 이를 유념해 소중한 주권행사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광주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사설

금품·비방 난무 불·탈법선거 뿌리 뽑아야

총선전이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불·탈법 혼탁선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국은 물론 광주·전남에서도 정책 대결은 실종된 채 금품과 향응 제공, 후보간 비방 및 고발 등이 잇따르고 있다. 어떻게든 당선만 되고 보자는 구태정치가 되살아나고 있어 유감이다.

전남도선관위는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의 한 후보가 3천만원대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잡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광주 광산갑의 민주당 김동철 후보는 무소속 송병태 후보가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대량 발송했다며 선관위에 고발했다. 목포선관위는 후보를 비방한 유인물을 수거해 조사하고 있다.

금품 및 향응 제공, 흑색선전, 상호 비방 등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대표적 행태다. 각종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풍토가 많이 개선됐다지만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선거전이 치열할수록 불·탈법 선거의 유혹은 클 것이다.

불·탈법 선거의 최대 피해자는 유권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총선에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 받았다가 5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유권자가 지난달 말 현재 전국적으로 116명이나 된다. 부과된 과태료가 8천137만원에 달하고 검찰에 계류중인 사건까지 포함하면 7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중앙선관위는 3일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전국 32개 선거구에 특별조사팀을 긴급 투입, 금품 및 음식물 제공과 비방·흑색선전 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나 검찰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의 역할이다. 유권자 스스로 혼탁·과열선거에 현혹되거나 휩쓸리지 않는 깨어 있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불·탈법 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선관위의 취지는 국민들의 고발 의식을 고취하려는 것이다.

'고사 위기' 지방 부동산 시장 방치할 건가

지난 2000년 이후 지방과 수도권의 집값 및 땅값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졌다고 한다. 특히 향후 지방의 집값 하락 가능성이 수도권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시장 양극화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이 지방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지방경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신용평가회사인 한신정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광주의 평균 아파트값은 9천760만원으로 서울의 5억4천400만원의 20%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광주의 아파트 5채를 팔아도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할 수 없는 것이다.

땅값도 최근 5년간 서울이 16.2% 오른 데 비해 광주와 전남은 각각 4.3%, 5.8% 상승에 그쳤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광주·전남 의 땅값은 사실상 하락한 셈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지방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는커녕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의 미분양주택은 각각 전체 주택 공급물량의 14.9%와 11.9%에 달했다. 올 들어서도 미분양아파트 물량은 늘어만 가고 있고 분양시장은 거의 올스톱된 상황이다. 이대로 가면 지방 부동산 시장 붕괴는 물론 지방경제의 파탄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방 주택시장 침체의 책임은 정부와 민간 건설사 모두에게 있다. 하지만 지금은 한가하게 책임 소재만을 따질 상황이 아니다. 지방 주택시장을 살릴 '응급 조치'가 절실한 때이다. 사실 지방 체감경기의 악화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다. 지방민의 상대적 박탈감도 크다.

지방 주택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출규제, 양도세 등 규제완화가 시급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껏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방경제 회생의지가 있다면 지방부동산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等鼓

우승의 조건(?)

프로야구 KIA타이거즈가 시즌 오픈 후 3연패 끝에 지난 2일 겨우 1승을 건졌다. 전력을 보강해 올 시즌 '돌풍'을 몰고올 것으로 점쳐졌던 것에 비하면 시동이 늦다.

지난해 꼴찌에 머물렀던 KIA는 메이저리그 출신인 서재응, 최희섭과 용병 호세 리마(투수), 발데스(유격수)를 영입하고 나지완 등 가능성 있는 신인을 받아들여 올해를 '야구 명가' 재건의 해로 선언했다. 전신인 해태타이거즈의 통산 9번 한국시리즈 우승을 물려받은 KIA는 'V10' 달성이라는 지상 목표도 세웠다.

해태가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하고 호남인들과 함께 '목포의 눈물'을 목메어 불렀던 해를 되짚어보면 당시 사회 분위기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로야구가 비록 신군부의 '3S정책'(Sports·Screen·Sex)에 따라 출발한 성격이 짙지만 해태의 아홉 번 우승은 억눌렸던 호남인들의 카타르시스 창구로 충분했다.

해태는 프로야구 출범 이듬해인 1983년 첫 우승에 이어 신군부 철권통치가 극에 달하던 86, 87, 88, 89년 4년 연속 정상에 올라 호남인들의 막힌 가슴을 뚫어 주었다. 이후 해태는 91, 93, 96, 97년 한국시리즈에서 잇따라 우승해 'V9'의 위업을 세운 후 문패를 KIA에 넘겨주었다.

해태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뜯어보면 두 가지의 조건(?)이 갖춰져 있었다. 먼저, 선동열·김성한·김봉연·김준환·김종모·한대화·이상윤… 등 대한민국 야구를 대표하는 스타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또 당시 광주·전남은 정권에서 소외됐던 시기여서 지역민들은 불만과 설움을 야구장에서 풀곤 했다.

KIA가 전력을 보강하고 'V10'도전을 선언한 올해 광주·전남지역은 묘하게도 정치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 해태가 우승행진을 벌였을 때와 흡사한 분위기다.

따라서 올해 KIA가 우승할 수 있는 안팎의 조건은 마련된 셈(?)이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KIA의 파이팅이다.

/박치경 체육·여론매체부장 unipark@

농번기 농촌 도둑 극성, 방범활동 강화해야

농촌 도둑이 극성이다. 제주도에서 18차례나 농가를 털은 절도범이 잡혔다. 이 절도범은 휴대전화로 농촌의 일기예보를 듣고 날씨가 좋은 날이면 농민들이 모두 밭일을 나가 집이 비우는 사이 집에 침입해 예금통장을 훔쳤다는 것이다.

농민들이 통장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놓는 사례가 많아 훔친 통장에서 돈을 찾기도 쉬웠다고 한다. 또 비밀번호를 적어놓지 않았더라도 대부분 집 전화번호나 번지수같은 것으로 비밀번호를 만들다보니 쉽게 알아낼 수 있었다고 한다.

또 농촌에는 노인들만 있다보니 통장이 없어진 것도 모른채 한참 뒤에야 신고하다보니 범인 잡는데도 힘들었다는 것이다.

이 지역의 농촌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곳곳에서 농촌을 노리는 도둑들이 활개치고 있으니 경찰은 물론이고 농민들 스스로 방범에 철저했으면 한다.

▲강명순·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임플란트 비용 천차만별 가이드라인 설정해야

오래 전부터 충치의 신경을 제거하고 그 위에 보철물을 덧씌워 생활해왔다. 보철물을 끼울 때는 충치 외에 양쪽의 정상 이빨을 갈아 거기에 보철물을 끼운 뒤 강력 접착제로 붙이는 방식을 쓴다.

하지만 이것이 영구적이지 못해 얼마 전부터 충치를 제거한 자리에 남아있던 신경조직에서 자구만 염증과 고름이 생겨서 치과에 갔더니 이젠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는 처방을 받았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 임플란트 가격은 왜 그렇게 비싼지, 그리고 왜 외국산과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환자가 고민하게 만드는 지 솔직히 화가 났다. 임플란트 1개 시술비용이 국산재료는 가장 싼 것이 170만원 정도라고 했고 외국제품은 무려 450만원이나 됐다. 혹시나 다른 치과에 가봤더니 가격이 서로 다르고 치료 기간도 큰 차이가 났다. 어디에 가서 얼마짜리로 하는 게 좋은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물론 임플란트 시술은 치아 상태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겠지만 가격이 너무나 천차만별이었다. 의료당국이나 치과의사협회 차원에서 소비자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수 없을까.

▲오동은·광주시 동구 금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19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마케팅국	2200-521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A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FAX	222-4267〉	조사부	2200-570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